

- 주요 뉴스: 미국 '21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이후 최고치 정점 부근 가능성
 - IMF 총재, 미국 인플레이션은 2/4분기에 완화될 전망
 - 중국 '21년 12월 생산자물가 상승세 둔화. 당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효과
 - 일본은행 총재, 국내 소비자물가의 점진적 상승을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21년 12월 소비자물가의 예상치 부합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3%], 달러화 약세[-0.7%],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추가 통화긴축 우려 완화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상품관련주 강세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7%, 0.6%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1년 12월 소비자물가의 선반영 평가로 상승 제한
독일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 완화 기대 등으로 3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87.1원, -4.3원) 0.4% 하락, 한국 CDS 보합

		1/12일	1/11일	전일대비			1/12일	1/1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726.4	4,713.1	0.28%	국채 금리 10y	미국	1.74%	1.74%	1bp
	유럽	486.20	483.08	0.65%		독일	-0.06%	-0.03%	-3bp
	중국	3,597.4	3,567.4	0.84%	CDS 5y	한국	23bp	23bp	0bp
	일본	28,766	28,222	1.92%		중국	43bp	42bp	1bp
	한국	2,972.5	2,927.4	1.54%	위험 지표	EMBI+	-	402	-
환율	달러지수	95.00	95.62	-0.65%		VIX	17.62	18.41	-4.29%
	유로화	1.1442	1.1367	0.66%		WTI유	82.64	81.22	1.75%
	엔화	114.64	115.30	0.58%	원자재	구리	455.7	442.9	2.88%
	위안화	6.3584	6.3740	0.25%		금	1,826.2	1,821.6	0.25%
	원화	1,190.5	1,194.7	0.3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21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이후 최고치. 정점 부근일 가능성

-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7.0%로 거의 40년래 최고치. 다만 이는 예상치에 부합. 전월 대비 상승률은 0.5%로 11월(0.8%) 대비 둔화. 근원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4.9%→5.5%)은 11월 대비 높은 수준
- 이번 결과는 코로나 19에 따른 수급 불균형 등에 기인. 항목별로는 중고차, 가구 등의 내구재, 음식료 등이 많이 오른 반면,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한적.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임금 및 임대료의 상승도 높은 수준
- Wells Fargo의 Sarah House는 인플레이션이 향후 수개월 이내에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다만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은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책 당국 모두에게 도전이 된다고 진단
- 한편 RBC Capital의 Tom Porcelli는 연준이 금년 3월 첫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총 4회의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 특히 연준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인플레이션 대응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지역연은보고서(베이지북),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하지만 향후 둔화될 가능성

- 12개 지역 연은들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미크론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인력 부족 등이 지속. 향후 성장 전망은 점차 약화되는 모습. 또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

■ IMF 총재, 미국 인플레이션은 2/4분기에 하락할 전망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급 차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

■ 미국 연준 이사, 인플레이션 억제가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 브레이너드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기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걱정하고 있다고 평가. 한편 세인트루이스 연은 메스터 총재는 양적긴축을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

■ 중국 '21년 12월 생산자물가, 상승세 둔화. 당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효과

- 통계국에 따르면, 같은 달의 전년동월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0.3%로 전월(12.9%) 대비 하락. Capital Economics의 Sheana Yue는 석탄공급 및 주택건설 부진 등을 고려 시 향후 생산자물가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같은 달의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5%로 전월(2.3%) 및 예상치(1.8%)를 모두 하회. Pinpoint 자산운용의 Zhiwei Zhang은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는 당국의 경기부양 노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평가

■ 중국 '21년 12월 위안화 신규대출, 전월비 소폭 감소. 총융자잔액은 사상 최대

- 인민은행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위안화 신규대출이 1.13조위안으로 전월(1.27조위안) 대비 감소. 총융자잔액은 19.95조위안으로 사상 최대치. 초상증권의 Luo Yunfeng은 신규대출이 감소했으나 실물경제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개선되고 있다고 발언

■ 중국 '21년 기업어음 상환 연체,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부동산 침체 등이 영향

- 작년 기업어음 지급을 연체한 기업의 수는 '20년 대비 26%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 최근 당국은 금융시장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어음 관련 정보 확대를 요구

■ 일본은행 총재, 국내 소비자물가의 점진적 상승을 예상

- 구로다 총재는 해당 전망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 경제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일본은행은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 특히 공급 차질 완화로 자동차 생산이 증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2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21년 11월 산업생산(전월비): 2.3%, 10월(1.1%), 예상치(0.5%)

■ 주요 경제 이벤트(1/13 현지시각 기준)

- ECB 데 퀴도스 부총재, 연준 브레이너드 이사 강연
- 미국 '21년 12월 생산자물가, 1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양적긴축, 2019년과 달리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 - 블룸버그

(Don't Freak Out About the Fed's Big Balance Sheet)

- 연준이 금년 하반기 양적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양적긴축이 2019년과 같이 긴축발작을 재현시킬 수 있다고 우려. 그러나 금년에는 2019년의 경우와 같은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측
- 이는 양적긴축이 연준의 충분한 사전 예고 이후에 시작하기 때문. 또한 금년의 경우 양적긴축이 상당한 수준의 금리 상승 이후에 시작될 전망. 이에 은행의 유동성 공급 능력이 수요보다 우위에 있어, 금융시장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아울러 최근 연준은 스탠딩 레포 제도를 도입. 이에 은행들은 2019년과 달리 외부로부터 단기대출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

■ 미국 공급망 혼란,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가능성 - The New York Times

(Supply chain snags continued to drive up prices in December)

- 오미크론과 수요 증가 및 공급 차질은 작년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 상승한 주요 원인. 이중 공급차질 문제는 중국이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봉쇄 조치에 나서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 미국 서부지역 항만 시설의 장기간 부진한 투자도 운임 비용 상승으로 연결.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급망 대부분이 민간 소유여서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울 전망

■ 미국 인플레이션, 코로나 19 영향에서 임금 상승으로 초점의 변화가 예상 - WSJ

(Watching for a Wage-Price Spiral)

■ 미국 채권 투자자, 연준 금리인상 상한선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인식 - 블룸버그

(The Bond Market Refuses to Accept Economic Reality)

■ 미국 고용회복,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등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 - Financial Times

(US jobs recovery is sending a hawkish signal)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